

SM, LG화학 정상가동 한숨 돌렸다!

증설분 15만톤 완전 정상가동 ... 9-10월 정기보수로 수급밸런스 유지

LG화학이 2003년 11월 SM(Styrene Monomer) 15만톤을 증설함에 따라 국내 SM 생산능력이 246만톤에서 261만톤으로 증가하면서 2004년 상반기 SM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9.7% 늘어난 133만9855톤으로 집계됐다.

LG화학은 2003년 3차례, 2004년 1차례에 걸쳐 약간씩의 공정 트러블이 발생해 수요기업들의 위기감을 자아냈으나 6월부터는 완전 정상가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상반기 SM 국내판매도 91만4906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.5% 늘어났으며 수입과 수출도 각각 2.1%, 1.6% 증가했다.

10월에는 삼성Atofina와 동부한농화학의 SM 플랜트 정기보수가 예정돼 있어 다소 우려되고 있으나 여천NCC가 2005년으로 정기보수 스케줄을 연기해 수급밸런스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.

국내 SM 수급동향(2004.1H)

(단위: M/T, %)

구 분	2003	2003.1H	2004.1H	증감률
생산능력	2,477,000	1,238,502	1,305,000	5.4
생 산	2,537,734	1,221,294	1,339,855	9.7
수 입	339,453	189,812	193,830	2.1
공급계	2,877,187	1,411,106	1,533,685	8.7
국내 판매	1,723,600	827,991	914,906	10.5
수 출	828,171	418,758	425,405	1.6
판매계	2,551,771	1,246,749	1,340,311	7.5
국내수요	2,063,053	1,017,803	1,108,736	8.9
재 고	40,010	25,426	35,337	39.0
가동률	102.5	98.6	102.7	4.1

한편, 여천NCC가 2005년 10월 완공을 예정으로 SM 생산능력을 14만2000톤에서 28만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삼성Atofina도 SM 증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<심주영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9/21>